

청소년의 음주 실태 ;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최영실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Drinking conditions of adolescents ;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Young-Sil Choi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University

요 약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3개년간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음주 행태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조사에 참여한 표본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표성을 갖도록 지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행태에 대해 3개년간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문제음주 항목에서는 다소 하강상태를 보였으나, 음주시작시기(중학교 2학년;21.5%), 음주일수(20-29일;3.8%),음주량(2병 이상;12.2%), 구매 방법 및 용이성(편의점 구매;32%, 굳이 구매하려하지 않음52%), 음주교육 유무(음주교육 받지 못함;72%)등의 항목에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항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교유형에서는 남녀 공학이, 학교 급에서는 고등학교가, 거주형태에서는 자취,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중·상' 으로 응답한 학생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음주행태에 대한 3개년 간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그 결과의 추이가 여전히 주의할 만한 수치여서 음주에 대한 보건 교육이 학교뿐 만아니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모두가 함께 청소년 음주에 대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basic data health plan &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by examining the recent 3 year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data obtained in 2013, 2014 and 2015. The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using the t-test and cross-analysis. After confirming the drinking habits of teenagers in Korea, the issue was slightly lower in the issue of problem drinking. However, the first time for drinking alcohol was the 2nd grade of middle school(21.5%) and the average alcohol intake was 20 to 29 days(3.8%) and usually consisted of more than two bottles (12.2%)s. Also, the method of buying liquor was found to be mainly at convenience stores(32%), and the adolescents were found not to have been trained for drinking(52%).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se item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education type, the high school type, the trace in the residence type, and the 'middle-high level' in terms of the socio-economic level. When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drinking behavior during these three years, the outcome of the trend is still noteworthy, as health education for drinking alcohol is still important, and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is problem.

Keywords : Adolescent, Alcohol, Condition, Drinking, Health

*Corresponding Author : Young-Sil Choi(Kyung-In Women's University)

Tel: +82-31-828-7464 email: kiwicys@naver.com

Received June 29, 2017

Revised July 25, 2017

Accepted September 15, 2017

Published September 30,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의 음주는 단순히 그들의 신체적 손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자살 혹은 중독이나 심각한 건강문제 그리고 각종 비행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1]. 또한 청소년기의 음주행위는 그 수가 빈번할수록 성인기 고위험 음주 즉 알코올 의존 및 중독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2].

현재 청소년 음주는 여성화 저 연령화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시행되어지고 있다[3].

그러나 2015년 청소년의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다섯 명 중 한명은 여전히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보호법으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의 알코올에 대한 접근성과 주류구매의 용이성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2개월 동안의 문제 음주율(스트레스 풀거나 혹은 어울리기 위해, 혼자서 술을 마시거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절주충고를 받은 경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후 기억상실이나 음주 후 시비를 벌인 경험 중 두 가지 이상 경험)은 전체 음주자중 88.9%인 약 28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4].

성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인 청소년기의 학습된 건강 관련행위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각종 건강행동에 영향을 준다[5]. 따라서 성인기의 음주행동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2] 청소년기의 음주행위에 대한 중재는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더군다나 최초 음주경험이 초등학생이라 가정 할 경우 6년 이상이 지나 대학생이 되어 겨우 본격적인 절주교육을 시행되어진다는 연구결과[6]는 청소년의 음주에 관한 문제제기와 교육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청소년기의 중대한 교육 문제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최근 3 개년 간 음주실태와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음주에 관한 보건교육의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3개년간의 청소년의 음주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음주 실태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음주실태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향을 파악한다.
- 청소년의 문제음주 실태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음주 실태와 최근 3 개년 간 음주 및 문제음주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3, 2014, 2015년도에 실시된 제 9,10,11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수행 하였다[7]. 조사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800개 표본학교(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로 한 후, 16개 시·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 배분법을 적용하여 시·도, 도시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지역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남/여/남녀공학으로 표본학교수를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2단계 집락 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 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표본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선정된 표본학급의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1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과 ‘최근 30일동안 1잔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제외하였다. 이로써 불성실 응답을 최종 제외하고, 2013년도 72,435명중 10,645명, 2014년도 74,167명 중 10,492명, 2015년도 70,362명중 10,6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넷이 가능한 각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시간 1시간을 할애하여 일괄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2.3 연구 분석 내용

사용한 연구 도구의 내용 중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도

시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 단위), 성별, 학교 유형(남·여 공학, 남학교, 여학교), 학교 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학교 형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구분(초교입학 전, 초1,2,3,4,5,6, 중1,2,3, 고1,2,3), 거주 형태(부모, 친척, 기숙사, 보육원), 사회경제수준(성, 중상, 중, 중하, 하)으로 조사하였으며, 음주실태는 음주경험시기, 음주일수, 음주량, 주류구매방법, 구매용이성, 음주교육, 문제음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음주실태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항목과 문제음주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최근 3개년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2.4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음주실태와 그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3개년간 음주와 문제음주실태에 대한 변화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χ^2 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음주실태비교

음주경험 시작 시기는 2013년도 2,166명(20.3%), 2014년도 2,238명(21.3%), 2,283명(21.5%)으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았다. 최근 30일동안 음주일수는 월1-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0일 이내에 20-29일정도 술을 마셨다는 응답이 2016년 350명(3.3%), 2014년 299명(2.8%), 2015년 402명(3.8%)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30일 동안의 음주량은 소주 1-2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0일 동안 소주 1병-2병 마셨다고 응답한 수가 2013년 2,110명(19.8%), 2014년 2045명(19.5%), 2015년 2,362명(22.3%), 소주 2병이상 마셨다고 응답한 수가 2013년 1,035명(9.7%), 2014년 1,100명 (10.5%), 2015년 1,299명(12.2%)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구매방법은 편의점 혹은 가게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2013년 3,118명(29.2%), 2014년 3,197명(30.5%), 2015년 3,393명(32.0%)로 많은 수를 보였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매 용이성의 경우 술을 사려고 한적 없다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의 음주교육 수혜 경험은 2013

년 7,454명(69.9%), 2014년 7,620명(72.6%), 2015년 7,643명(72.0%)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음주의 경우 다른 항목보다 스트레스 혹은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2016년 6,672명(62.6%), 2014년 6,367명(60.7%), 2015년 6,145명(57.9%)로 계속해서 많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음주자(문제음주행동을 2개이상 보인자)의 비율은 2013년 1,028명(47.5%)에서 2015년 3,921명(36.1%)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actual condition of alcohol

		(n/%)		
		2013	2014	2015
Beginning of the drinking.	before	491(4.6)	499(4.8)	463(4.3)
	Elementary 1	103(1.0)	97(0.9)	90(0.8)
	Elementary 2	152(1.4)	140(1.3)	124(1.1)
	Elementary 3	213(2.0)	221(2.1)	221(2.0)
	Elementary 4	308(2.9)	309(2.9)	279(2.6)
	Elementary 5	476(4.5)	489(4.7)	414(3.8)
	Elementary 6	908(8.5)	892(8.5)	771(7.1)
	Middle 1	1,743(16.4)	1,674(16.0)	1,729(15.9)
	Middle 2*	2,166(20.3)	2,238(21.3)	2,322(21.5)
	Middle 3	2,036(19.1)	1,971(18.8)	2,078(19.1)
	High 1	1,280(12.0)	1,201(11.4)	1,424(13.1)
	High 2	584(5.5)	566(5.3)	683(6.2)
	High 3	185(1.7)	205(2.0)	262(2.4)
Drinking days (days)	1-2	5,991(56.3)	6,187(59.0)	6,324(58.2)
	3-5	2,089(19.6)	2,059(19.6)	2,103(19.3)
	6-9	1,211(11.4)	1,086(10.4)	1,115(10.2)
	10-19	820(7.7)	694(6.6)	739(6.8)
	20-29*	350(3.3)	299(2.8)	412(3.8)
	Every day	184(1.7)	167(1.6)	177(1.6)
Alcohol amount (soju/ shot glass)	1-2	4,497(42.2)	4,486(42.8)	4,366(40.2)
	3-4	1,937(18.2)	1,876(17.9)	1,757(16.2)
	5-6	1,076(10.1)	985(9.4)	1,009(9.3)
	1-2 bottle	2,110(19.8)	2,045(19.5)	2,414(22.2)
	> 2bottle*	1,025(9.6)	1,100(10.5)	1,324(12.2)
Liquor purchase method	Not trying	1,695(15.9)	1,659(15.8)	1,944(17.9)
	Home or friend's	2,556(24.0)	2,476(23.6)	2,573(23.7)
	Convenience store*	3,115(29.3)	3,197(30.5)	3,483(32.0)
	internet cafe	95(0.9)	69(0.7)	70(0.6)
	restaurant	1,433(13.5)	1,152(11.0)	848(7.8)
Ease of purchase	From adults	1,751(16.4)	1,939(18.5)	1,952(18.0)
	Not intended*	5,208(48.9)	5,195(49.5)	5,657(52.0)
	impossibility	776(7.3)	700(6.7)	702(6.5)
	Lot of effort	541(5.1)	539(5.1)	580(5.3)
	Little effort	1,964(18.4)	1,924(18.3)	1,916(17.6)
	No effort	2,156(20.3)	2,134(20.3)	2,015(18.5)
Alcohol education	None*	7,454(69.9)	7,620(72.6)	7,831(72.0)
	Yes	3,204(30.1)	2,872(27.4)	3,039(28.0)
Drinking problem	Stress	6,671(62.6)	6,367(60.7)	6,293(57.9)
	Alone	2,910(27.3)	2,711(25.8)	2,720(25.0)
	Drinking advice.	1,646(15.4)	1,478(14.1)	1,496(13.8)
	drunk driving	1,153(10.8)	1,107(10.6)	960(8.8)
	Amnesia	2,509(23.5)	2,368(22.6)	2,342(21.5)
	Argument	1,195(11.2)	990(9.4)	935(8.6)
	Problem drinker	1,028(47.5)	4,071(38.8)	3,921(36.1)

* This is mode or the upward trend in the items.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실태비교

앞서 살펴본 음주실태 중 계속해서 높은 빈도를 보이며, 증가추세에 있는 항목에 대해 일반적 특성별 음주실태를 비교분석 하였다. 음주시작시기(중2)는 3개년 모두 학교유형, 학교급, 거주형태, 사회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음주일수(20-29일)는 2015년에는 도시구분에서, 학교유형, 학교급, 거주형태 및 사회경제수준은 3개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량(2병)은 도시구분과 학교유형은 2014년과 2015년도에 그리고 학

교급, 거주형태, 사회경제적 수준은 3개년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류구매방법은 학교유형은 2014년과 2015년에서, 도시구분과 학교급, 거주형태, 사회경제적 수준은 3개년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주류구매용이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모두에서 3년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음주교육 유무는 도시구분과 학교유형은 2013과 2015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교급은 3개년 모두에서, 거주형태는 2014년에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n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rinking. (n/%)

condition of alcohol	Beginning (Middle2)	\bar{x}	p	Drinking days (20-29day)		Amount (2bottle)		purchase method (Convenience store)		Ease of purchase (Not trying)		Alcohol education (None)						
				\bar{x}	p	\bar{x}	p	\bar{x}	p	\bar{x}	p	\bar{x}	p					
Kind of city	2013 Metropolitan	1,124(20.2)	21.186 .628	172(3.1)	16.835 .078	549(9.9)	5.771 .673	1,627(29.2)	118.354 .000*	2,604(46.8)	66.774 .000*	3,920(70.4)	20.062 .000*					
	City	876(20.3)		149(3.5)		395(9.2)		1,246(28.9)		2,211(51.3)		3,307(70.5)						
	Town	166(21.5)		29(3.8)		81(10.5)		242(31.4)		393(51.0)		484(62.8)						
	2014 Metropolitan	1,259(21.7)		156(2.7)		629(10.8)		1,719(29.6)		2,823(48.7)		4,171(71.9)						
	City	(880)(20.9)		119(2.8)		407(9.7)		1,319(31.3)		2,120(50.3)		3,093(73.4)						
	Town	99(20.8)		24(5.1)		64(13.5)		159(33.5)		252(53.1)		356(74.9)						
Type of school	2015 Metropolitan	969(21.7)	22.155 .570	176(3.9)	27.618 .002*	478(10.7)	42.483 .000*	1,371(30.8)	47.586 .000*	2,350(52.7)	38.298 .000*	3,130(73.8)	16.718 .000*					
	City	1,141(21.2)		189(3.5)		701(13.1)		1,754(32.7)		2,792(52.0)		3,964(73.8)						
	Town	222(21.3)		47(4.5)		145(13.9)		358(34.4)		515(49.4)		737(70.7)						
	Coed	1,529(20.6)		251(1.9)		171(6.1)		2,153(29.0)		3,606(48.6)		5,109(68.9)						
	2013 Boys	356(18.4)		66(3.4)		602(10.5)		585(30.2)		950(49.0)		1,414(73.0)						
	Girls	281(21.8)		5(0.4)		252(12.1)		377(29.3)		652(50.6)		918(71.3)						
Kind of school	2014 Coed	1,491(20.7)	52.073 .001*	229(3.2)	87.511 .000*	789(11.0)	261(12.4)	2,172(30.2)	48.482 .000*	3,510(48.8)	64.442 .000	5,179(72.0)	4.375 .112					
	Boys	469(22.3)		46(2.2)		139.837 .000*		725(34.5)		997(47.4)		1,548(73.6)						
	Girls	278(23.2)		24(2.0)		50(4.2)		300(25.0)		688(57.4)		893(74.5)						
	Coed	1,533(21.5)		280(1.9)		926(13.0)		2,338(32.8)		3,666(51.5)		5,042(70.8)						
	2015 Boys	482(21.2)		86(3.8)		100.904 .000*		321(14.1)		101.215 .000*		1,506(50.5)		32.398 .000*	1,671(73.4)	19.570 .000*		
	Girls	317(21.6)		46(2.3)		77(5.2)		410(27.9)		841(57.2)		1,118(76.1)						
Resident	2013 Middle	516(18.3)	1892.426 .000*	108(3.8)	85.209 .000*	760(10.2)	229(11.8)	442(15.7)	2,010(35.0)	1,876(66.6)	13.861 .179	1,625(57.7)	13.854 .001*					
	High	1,205(21.0)		163(2.8)		131.198 .000*		2,502(43.5)		613.891 .000*		4,350(75.6)						
	Special	445(21.4)		79(3.8)		36(2.8)		663(31.9)		830(40.0)		1,466(70.6)						
	2014 Middle	504(18.4)		87(3.2)		166(6.1)		424(15.5)		1,904(69.7)		1,681(61.5)						
	High	1,249(21.7)		150(2.6)		100.753 .000*		639(11.1)		829.360 .000*		2,082(36.1)		980.253 .000*	2,541(44.1)	706.178 .000*	4,444(77.1)	233.270 .000*
	Special	485(24.3)		62(3.1)		295(14.8)		691(34.6)		750(37.6)		1,496(74.9)						
-tial	2015 High	1,372(22.4)	1909.260 .000*	103(4.2)	94.902 .000*	139(5.7)	800(13.1)	308(12.5)	2,238(36.6)	1,821(74.0)	951.538 .000*	2,925(48.3)	732.494 .000*	4,622(75.6)	161.085 .000*			
	Special	508(22.1)		101(4.4)		385(16.8)		937(40.8)		884(38.5)		1,682(73.3)						
	Family	2,033(20.5)		325(3.3)		893(9.0)		2,895(29.2)		4,933(49.7)		6,962(70.2)						
	2013 Relation	25(14.4)		6(3.4)		35(20.1)		45(25.9)		52(29.9)		107(61.5)						
	Boarding	103(23.3)		12(2.7)		48(10.8)		157(35.4)		196(44.2)		312(70.4)						
	Orphanage	5(4.7)		7(6.6)		49(46.2)		181(17.0)		27(25.5)		60(56.6)						
Classify of grade	2014 Family	2,126(21.7)	380.290 .000*	277(2.8)	991.744 .000*	952(9.7)	32(18.6)	2,990(30.5)	383.483 .000*	4,944(50.4)	120.130 .000	7,147(72.8)	14.046 .003*					
	Relation	25(14.5)		7(4.1)		32(18.6)		53(30.8)		55(32.0)		124(72.1)						
	Boarding	74(18.4)		9(2.2)		60(14.9)		130(32.3)		174(43.3)		289(71.9)						
	Orphanage	13(12.3)		6(5.7)		56(52.8)		24(22.6)		22(20.8)		60(56.6)						
	2015 Family	2,192(21.6)		387(3.8)		1,176(11.6)		3,238(32.0)		5,358(52.9)		7,313(72.2)						
	Relation	27(18.5)		7(4.8)		33(22.6)		44(30.1)		49(33.6)		100(68.5)						
Boarding	103(21.0)	14(2.9)	67(13.7)	175(35.7)	219(44.7)	348(71.0)												
2013	Orphanage	10(9.3)	4(3.7)	48(44.9)	26(24.3)	31(29.0)	70(65.4)											
	high	127(17.1)	31(4.2)	126(16.9)	177(23.8)	335(45.0)	516(69.4)											
	high-middle	482(21.3)	66(2.9)	187(8.2)	632(27.9)	1,170(51.6)	1,533(67.6)											
	2014 middle	984(20.9)	154(3.3)	241.400 .000*	376(8.0)	201.907 .000*	1,400(29.7)	75.642 .000*	2,366(50.2)	85.897 .000*	3,317(70.4)	8.549 .073						
	middle-low	425(20.2)	67(3.2)	175(8.3)	664(31.6)	1,007(47.9)	1,485(70.6)											
	low	148(18.1)	32(3.9)	161(19.7)	242(29.5)	330(40.3)	590(72.0)											
2015	high	140(18.3)	24(3.1)	156(20.3)	222(28.9)	337(43.9)	541(70.5)											
	high-middle	519922.3)	65(2.8)	205(8.8)	666(28.6)	1,224(52.6)	1,637(70.3)											
	2014 middle	1,019(21.5)	133(2.8)	324.118 .000*	392(8.3)	260.160 .000*	1,442(30.4)	88.811 .000*	2,454(51.7)	123.074 .000*	3,510(73.9)	12.976 .011						
	middle-low	412921.20	47(2.4)	208(10.7)	626(32.2)	920(47.3)	1,412(72.5)											
	low	148(21.1)	30(4.3)	139(19.8)	241(34.3)	260(37.0)	520(74.1)											
	high	181(20.2)	34(3.8)	176(19.6)	236(26.3)	445(49.7)	646(72.1)											
2015	high-middle	518(20.7)	88(3.5)	284(11.4)	784(31.3)	1,368(54.7)	1,815(72.5)											
	middle	1,095(22.0)	192(3.9)	363.996 .000*	534(10.7)	185.922 .000*	1,622(32.3)	132.926 .000*	2,695(54.1)	144.533 .000*	3,583(71.9)	.780 .941						
	middle-low	428(22.6)	74(3.9)	205(10.8)	648(34.1)	947(49.9)	1,370(72.2)											
	low	110(18.7)	24(4.1)	125(21.3)	193(32.8)	202(34.4)	417(70.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실태비교

문제음주에 대한 각 항목별 2013-2015년도 3개년간의 변화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분석 하였다. 스트레스는 학교유형과 거주형태에서 2013년과 2015년에, 학교급과 사회경제수준은 3개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경우와 시비경험은 학교 유형, 학교 급, 거주형태,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3개년 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음주운전은 도시구분에서는 2013년과 2015년에 그리고 학교유형, 학교급, 거주형태, 사회경제수준은 3개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질주충고와 음주 후 기억상실은 도시구분은 2015년에, 학교유형, 학교 급, 거주형태, 사회경제적 수준은 3개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n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rinking problem. (n/%)

	Drinking problem	Stress				Alone				Drinking advice				drunk driving				Amnesia				Argument			
		σ ²	p	σ ²	p	σ ²	p	σ ²	p	σ ²	p	σ ²	p	σ ²	p	σ ²	p	σ ²	p	σ ²	p				
Kind of city	2013 Metropolitan	3,507(63.0)				1,481(26.6)				840(15.1)				551(9.9)				1,262(22.7)				620(11.1)			
	City	2,657(61.7)	4.112	.128	4.062	1,197(27.8)	4.062	.131	680(15.8)	979	.613	494(11.5)	12.434	.002*	1,043(24.2)	5.829	.054	482(11.2)	.110	.946					
	Town	502(65.1)				229(29.7)				122(15.8)				104(13.5)				200(25.9)				89(11.5)			
	2014 Metropolitan	3,527(60.8)				1,482(25.5)				801(13.8)				589(10.2)				1,271(21.9)				562(9.7)			
	City	2,544(60.3)	.770	.680	1.253	1,112(26.4)	1.253	.535	618(14.7)	2,600	.273	462(11.0)	2.484	.289	972(23.1)	5.827	.054	393(9.3)	2.872	.238					
	Town	296(62.3)				117(24.6)				59(12.4)				56(11.8)				125(26.3)				35(7.4)			
Type of school	2015 Metropolitan	2,529(56.7)				1,077(24.2)				563(12.6)				337(7.6)				855(19.2)				356(8.0)			
	City	3,131(58.3)	6.336	.042	3.503	1,367(25.5)	3.503	.174	764(14.2)	11,100	.004*	502(9.3)	20.747	.000*	1,206(22.5)	35.537	.000*	476(8.9)	4.804	.091					
	Town	633(60.7)				276(26.5)				169(16.2)				121(11.6)				281(27.0)				103(9.9)			
	Coed	4,666(62.9)				2,127(28.7)				1,222(16.5)				870(11.7)				1,860(25.1)				899(12.1)			
	2013 Boys	1,132(58.4)	27.201	.000*	23.915	482(24.9)	23.915	.000*	255(13.2)	20,533	.000*	210(10.8)	46.225	.000*	363(18.7)	36.355	.000*	195(10.1)	26.213	.000*					
	Girls	868(67.4)				298(23.1)				165(12.8)				69(5.4)				282(21.9)				97(7.5)			
Kind of school	2014 Coed	4,408(61.3)				1,917(26.7)				1,095(15.2)				798(11.1)				1,772(24.6)				712(9.9)			
	Boys	1,215(57.8)	9.572	.008	12.120	530(25.2)	12.120	.002*	258(12.3)	26,786	.000*	241(11.5)	34.976	.000*	366(17.4)	57.712	.000*	197(9.4)	11.924	.003*					
	Girls	744(62.1)				264(22.0)				125(10.4)				68(5.7)				230(19.2)				81(6.8)			
	Coed	4,169(58.5)				1,843(25.9)				1,053(14.8)				666(9.3)				1,611(22.6)				642(9.0)			
	2015 Boys	1,239(54.4)	15.519	.000*	19.543	577(25.4)	19.543	.000*	277(12.2)	18,644	.000*	221(9.7)	31.828	.000*	429(18.8)	15.472	.000*	206(9.2)	18.090	.000*					
	Girls	885(60.2)				300(20.4)				166(11.3)				73(5.0)				302(20.5)				84(5.7)			
Type of school	Middle	1,118(39.7)				663(23.5)				378(13.4)				263(9.3)				474(16.8)				257(9.1)			
	2013 High	4,028(70.0)	868.787	.000*	34.536	1,603(27.9)	34.536	.000*	872(15.2)	28,064	.000*	618(10.7)	15.910	.000*	1,403(24.4)	125.001	.000*	644(11.2)	28.290	.000*					
	Special	1,520(73.2)				641(30.9)				392(18.9)				268(12.9)				628(30.3)				290(14.0)			
	Middle	990(36.2)				582(21.3)				319(11.7)				254(9.3)				443(16.2)				205(7.5)			
	2014 High	3,920(68.0)	942.166	.000*	42.250	1,555(27.0)	42.250	.000*	797(13.8)	40,526	.000*	603(10.5)	12.865	.002*	1,325(23.0)	127.936	.000*	542(9.4)	29.497	.000*					
	Special	1,457(73.0)				574(28.8)				362(18.1)				250(12.5)				600(30.1)				243(12.2)			
Residential	Middle	758(30.8)				452(18.4)				273(11.1)				178(7.2)				359(14.6)				150(6.1)			
	2015 High	3,953(64.6)	969.346	.000*	100.434	1,560(25.5)	100.434	.000*	828(13.5)	38,069	.000*	528(8.6)	22.385	.000*	1,329(21.7)	136.270	.000*	528(8.6)	39.376	.000*					
	Special	1,582(69.0)				708(30.9)				395(17.2)				254(11.1)				654(28.5)				257(11.2)			
	Family	6,195(62.4)				2,662(26.8)				1,480(14.9)				1,011(10.2)				2,298(23.2)				1,046(10.5)			
	2013 Relation	94(54.0)	18.081	.000*	31.321	55(31.6)	31.321	.000*	44(25.3)	74,673	.000*	38(21.8)	143.719	.000*	52(29.9)	37.584	.000*	35(20.1)	172.714	.000*					
	Boarding	313(70.7)				138(31.2)				73(16.5)				549(12.2)				58(13.1)				58(13.1)			
Classify of grade	Orphanage	64(60.4)				52(49.1)				45(42.5)				46(43.4)				50(47.2)				52(49.1)			
	Family	5,960(60.7)				2,494(25.4)				1,327(13.5)				983(10.0)				2,187(22.3)				877(8.9)			
	2014 Relation	103(59.9)	.220	.974	41.221	63(36.6)	41.221	.000*	40(23.3)	110,767	.000*	33(19.2)	152.036	.000*	51(29.7)	34.975	.000*	26(15.1)	160.583	.000*					
	Boarding	241(60.0)				102(25.4)				61(15.2)				43(10.7)				83(20.6)				40(10.0)			
	Orphanage	63(59.4)				52(49.1)				509(47.2)				48(45.3)				47(44.3)				47(44.3)			
	2015 Family	5827(57.5)				2,481(24.5)				1,333(13.2)				844(8.3)				2,124(21.0)				818(8.1)			
2013 high	443(59.5)	14.084	.003*	32.429	259(93.4)	32.429	.000*	157(21.1)	88,170	.000*	1169(15.6)	166.603	.000*	193(25.9)	73.624	.000*	128(17.2)				128(17.2)				
high-middle	1,317(58.1)				573(25.3)				312(13.8)				209(9.2)				459(20.2)				232(10.2)				
2014 middle	2,928(62.1)	56.048	.000*	119.455	1,125(23.9)	119.455	.000*	663(14.1)	75,651	.000*	445(9.4)	94.164	.000*	1,052(22.3)	61.360	.000*	432(9.2)	109.434	.000*						
middle-low	1,417(67.4)				631(30.0)				3149(14.9)				2219(10.5)				534(25.4)				237(11.3)				
low	561(68.5)				323(39.4)				196(23.9)				1589(19.3)				267(32.6)				162(19.8)				
2015 high	453(59.1)				234(30.5)				165(21.5)				126(16.4)				201(26.2)				1329(17.2)				
high-middle	1,336(57.4)				559(24.0)				299(12.8)				218(9.4)				474(20.4)				206(8.8)				
2014 middle	2,829(59.6)	57.064	.000*	73.552	1,114(23.5)	73.552	.000*	591(12.4)	89,945	.000*	438(9.2)	79.699	.000*	994(20.9)	57.481	.000*	353(7.4)	120.376	.000*						
middle-low	1,248(64.1)				548(28.1)				265(13.6)				200(10.3)				476(24.4)				182(9.3)				
low	501(71.4)				256(36.5)				702(6.7)				1259(17.8)				223(31.8)				117(16.7)				
2015 high	466(52.0)				274(30.6)				177(19.8)				122(13.6)				234(26.1)				123(13.7)				
high-middle	1,368(54.7)				572(22.9)				321(12.8)				197(7.9)				509(20.3)				204(8.2)				
2015 middle	2,885(57.9)	63.101	.000*	111.723	1,119(22.4)	111.723	.000*	597(12.0)	95,859	.000*	374(7.5)	130.755	.000*	971(19.5)	63.691	.000*	346(6.9)	103.141	.000*						
middle-low	1,169(61.6)				522(27.5)				259(13.6)				150(7.9)				443(23.3)				161(8.5)				
low	405(68.9)				233(39.6)				142(24.1)				117(19.9)				185(31.5)				101(17.2)				

4.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의 음주는 간 및 위장장애 등 장기손상은 물론 술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뇌신경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감각과 운동능력,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장기간의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시켜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8]. 또한 음주는 공격성, 충동성, 불안, 흥분 등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음주 후 겪게 될 부정적 경험으로 친구와의 싸움이나 각종 사고 등의 비율을 높인다[9].

이러한 청소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주에 대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경험하는 학생이 전체의 2013년 4.6%, 2014년 4.8%로 조금 늘었다가 다시 2015년 4.3%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경험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1-5학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비율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령인구 중 가장 많은 음주경험의 시작시기이면서, 2013년 20.3%, 2014년 21.3%, 2015년 21.5%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의 경우도 그 변화추이를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015년 여성 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학생 범죄자의 연령별 비율이 15세가 26.6%로 가장 높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한 점[10]과 이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신체적, 환경적인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저항이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11]를 볼 때 본 연구결과와 같이 이들의 음주율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을 단순한 통계적 수치 혹은 지나가는 성장기 어떤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해 준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과 중재 즉,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대한 보건 교육 뿐 아니라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신체적·정서적 중재와 적용이 교육현장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필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음주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2013년 69.9%,

2014년 72.6%로 상승하다가 2015년 72.0% 약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아직도 우리나라의 금주교육 방식이 징계차원에 머물고 있다[12]는 지적은 금주에 대한 교육 횟수를 늘리는 단순한 방법 뿐 만 아니라 음주행위를 하는 개인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노력[12]과 함께 금주교육과 금주 문화를 청소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자의 비율은 2013년 1,028명(47.5%), 4,071명(38.8%), 3,921명(36.1%)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환영할 만하지만 최근 30일 동안 음주일수가 20-29일이라고 응답한 청소년과 음주량이 2병 이상 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청소년을 유해물질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의 판매에 대한 금지[13]등 여러 노력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방면으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주류를 구매한 곳이 편의점이라는 응답이 2013년도 29.3%, 2014년 30.5%, 2015년 32.0%로 매년 증가 하고 있는데 이는 Kim[14]의 연구에서와 같이 식사 또는 간식을 위해 편의점 방문율이 높은 청소년에게 무조건적 노출과 함께 구매의 용이성 좋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편의점의 구매와 음주율 간에 구체적인 영향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제 음주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스트레스로, 이는 Kim[1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우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에서는 여학교에서, 거주형태는 하숙이나 자취 혹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가 많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im[1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외에 여자 청소년은 낮은 신체만족도, 남자 청소년은 선생님과의 낮은 유대관계가 음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과 Kim[15]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세밀한 관찰과 주의가 요구되며, 스트레스와 신체만족도, 선생님과의 유대 관계 등[15]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기된 요인 외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그 연구의 범위가 넓지 않아 보다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는 없었으나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음주 및 금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음주 청소년의 지식과 그에 따른 건강 신념 혹은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여 금주가 실제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생의 건강행위를 유도하거나 북돋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금주 보건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절한 방법을 함께 연구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보건교육과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Yoon, M. S. Cho, H. C., "A Longitudinal effects analysis of adolescent drinking on the suicidal ideation, Korea Youth Panel Survey, vol. 13, no. 3, pp. 43-66, 2011.
- [2] Chung, W. J, *Mental Health Policy Forum*, ISSN 1975-9282, vol. 3, pp. 143 - 153, 2009.
- [3] Lee, K. S., *Youth Smoking and Drinking Status and Policy Measure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p. 47 - 85, 2012.
- [4] Kim, S. S., *School-based prevention of adolescent alcohol problems : application of action research*, Unpublished docto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5.
- [5] Choi, Y. S., *Behaviors of hand washing practice Korean adolescents, 2011-2013: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 Korea Academia-Industrial Society*, vol. 15, no. 7, pp. 4132-4138,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7.4132>
- [6] Kim, M. S., *Influence of The School Drinking Education to Drinking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5.
- [7] Centers for Disease Control,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3".
- [8] Kim, S. G., Kim, S. K.,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adolescents' alcohol u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9, pp. 105-124, 2009.

- [9] Yoo, J. S., Kim, E. K., Park, W. Y., *Factors Influencing Problematic Drinking of Adolescents Having Parents with Alcoholic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4, pp. 2085-2012, 2013.
- [1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Youth Report", 251-265, 2015. [cited 2016 Feb 19],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accessed Jun, 10, 2017)
- [11] Jo, H. K.,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ighth Grade Syndrome Scale(EGSS)*, Unpublished doctor's thesis, Hannam University, 2017.
- [12] Jang, J. Y., *Drinking Condition and Drinking Condition of Teenager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s. Korea Alcohol Research Institute Spring Conference*, 2009.
- [13] Shin, S. M., Lee, H. W., Kang, S. W., *A study of major characteristics of buying cigarettes in adolescent smoker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of school health*, vol. 21, no. 2, pp. 97-105, 2008.
- [14] Kim, H. Y., *Relationship between Density of Convenience Store and Youth Smoking-Related Behaviors among Korea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6.
- [15] Kim, W. K.,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in Korean male and female youth,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19, no. 3, pp. 191-210, 2014.

최 영 실(Young-Sil Choi)

[정회원]



<관심분야>
보건, 건강증진

- 2007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6월 ~ 현재 :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